

# 샌델과 공화주의 공공철학

맹 주 만\*

**주제분류** 정치철학, 윤리학, 실천철학

**주요어** 자유주의 공공철학, 공화주의 공공철학, 샌델, 칸트, 롤스, 낙태 논쟁, 링컨-더글러스 논쟁, 칸트적 자유주의, 최소주의적 자유주의, 시민적 공화정, 절차적 공화정, 정치적 자유주의

**요약문**

샌델은 현재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의 공공철학이 근대 이래로 다양한 변형과 변신을 피하며 돌파구를 마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샌델의 비판은 적중한 것이 아니며, 그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주의는 특히 칸트적 자유주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적 공화정으로 해석되는 롤스 및 칸트적 자유주의 공공철학과 샌델의 시민적 공화정의 공공철학을 대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샌델은 오늘의 지배적인 정치철학으로서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지배 아래서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공동체의 쇠퇴와 자치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우리 시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 속에 남아 있는 시민적 공화정의 가능성들을 되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시민적 공화정으로서 샌델의 공공철학은 시장과 자본의 힘을 제재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 합리적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힘, 부자와 빈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선의 추구를 비롯해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등 공동체와 자치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자유주의 공공철학에서도 결코 배제되거나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내지는 긴장관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근대 이후 정치적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등장은 애초에 그 자체가 공동체가 지닌 지배적인 자의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 구조와 권리 주체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저

\* 중앙대학교

와 같은 공화주의적 덕목들 역시 자유주의적 이념 아래서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샌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자치의 위기나 공동체의 쇠퇴와 같은 표현은 상황을 일방적으로 호도하기가 쉽다. 이 글은 이런 점들을 불식시키면서 샌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할 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낙태 논쟁과 링컨-더글러스 논쟁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 1. 샌델과 민주주의의 불만

샌델은 현대 실천철학 논쟁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공동체주의 진영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자신을 단순히 공동체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가치와 시민의 덕목을 강조하고 특정한 공간이 갖는 정치 지리학적 특수성과 역사성에 주목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주의자로 분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특히 오늘날의 지배적인 이념으로서 자유주의 철학 및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쏟아내는 강도 높은 비판과 대안적 해결책들을 들여다보면 그의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의 면모를 더 잘 엿볼 수 있다. 최근에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전략포럼 2013’에서 “경쟁력을 값아 먹는 ‘갈등’, 치유의 방법은 있는 것인가”란 주제로 행한 기조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시장과 자본의 힘을 제재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 합리적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힘, 부자와 빈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선의 추구를 비롯해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등 공동체와 자치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있는 그의 갈등 치유의 방법은 공감을 얻기에 적지 않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sup>1)</sup>

샌델의 이러한 주장들은 최근에 좀 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간의 자신의 정치철학적 입장을 담아내고 있는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제시한 기조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현대 자유민주주의, 특히 미국식 시장경제 중심의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덕과 자존심, 우정과 사랑 등 이른바 시장사회에 종속되어 돈으로

1) 이 포럼의 전체 주제는 “상생과 공존 그리고 창조, 미래의 생존전략 -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였다.

2) Michael J. Sandel, *What Money Can't Buy : the moral limits of market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2.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주지하듯이 이와 같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인해 양산되고 있는 문제적 현상들의 원인과 치유법에 대한 샌델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단순히 공동체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제 스스로 자신의 정치철학적 입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공화주의적 공공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록 공동체주의자 매킨타이어나 테일러 그리고 왈쩌와 하나로 묶이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sup>3)</sup>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샌델 역시 공동체주의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샌델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이 공화주의적 공공철학 혹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혹은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성격과 특징의 대강을 이에 앞서 출간한 바 있는 『민주주의의 불만』(1996)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이 같은 공공철학의 기본 정신과 성격은 이미 그의 초기 저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sup>5)</sup> 또 이 저서의 개정판(1998)에서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등 초판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는데 주력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자로서 샌델은 자유주의 공공철학에 필적하는 공화주의 공공철학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본 입장은 오늘날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의 불만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샌델은 오늘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자치의 상실”과 “공동체의 쇠퇴”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다.<sup>6)</sup>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직간

3) Michael J.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 252.

4)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art I The Constitution of the procedural Republic;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pp. 15-176.

5)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6)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 3.

접적으로 비단 매킨타이어(A. MacIntyre), 테일러(C. Taylor), 응어(R. Mangabeira Unger), 바버(B. Barber), 왈저(M. Walzer) 등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을 포함해서 공화주의 정치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만이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롤즈(J. Rawls), 드윌킨(R. Dworkin), 액커만(B. Ackerman), 거위스(A. Gewirth), 고티에(D. Gauthier), 노직(R. Nozick) 등과 같은 넓은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철학자들도, 비록 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로서 샌델의 비판은 주로 롤스를 향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에 한정될 수만은 없다. 롤스 역시 내부적으로는 칸트를 비롯한 다양한 자유주의자들과 대결하거나 비판하면서 이들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 샌델과 롤스의 대결 구도만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근대 이래로 민주주의와 함께 삼각 편대를 형성하며 근간을 이루어온 것이 바로 자치와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겹어가고 있는 길은 다만 공히 ‘상실’과 ‘쇠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등장은 애초에 그 자체가 공동체가 지닌 지배적인 자의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 구조와 권리 주체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목표는 또한 공화주의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유 민주 공화국’이라는 정체로 표현되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의 살아 있는 전통이다. 따라서 크게 보면 자유주의 역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토대로 해서 전통과는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추구했던 것이었기에 샌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공동체의 쇠퇴나 자치의 위기와 같은 표현은 상황을 호도하기가 쉽다. 어떤 공동체, 어떤 자치이어야 하는지가 자유주의의 등장 초기부터 쟁점이 되어왔듯이, 만일 오늘날의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근대 민주주의 등장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즉 자유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위기가 샌델의 묘안처럼 단순히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가장 잘 해소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혹은 공화주의를 포함하는 이념적 지형도는 상당히 복잡하다. 자유주의에도 여러 유형이 있듯이 공동체주의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며, 게다가 공화주의의 등장은 이 같은 지형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비지배의 자유로서의 자치와 시민적 덕성의 형성을 공동체적 가치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 관용이든 다수주의에 대한 존중이든 실질적인 도덕적 논증을 피할 수 없다”<sup>7)</sup>는 강한 신념을 토로하는 샌델의 공화주의는 멀리서는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가까이에서는 공동체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전선을 확대하고 있기에 단순히 특정한 개념으로 그의 정치철학을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이는 비단 샌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sup>8)</sup>

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의 지배적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가 다양한 변형과 변신을 꾀하며 돌파구를 마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샌델의 비판은 적중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샌델이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주의가 결코 자유주의, 특히 그 내부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칸트적 자유주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7) Michael J.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pp. 143-144.

8) 동일 진영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 교차가 가능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등의 다양한 개념 조합도 가능하다. 이는 그대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흐름을 반영한다. 세실 라보르드·존 메이너 (편),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박준혁·조계원·홍승헌 옮김, 까치, 2009 참조.

## 2. 자유주의 공공철학과 공화주의 공공철학

일견 소크라테스적 철학 모델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공공철학은 인간의 다양한 현재적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적 신념이나 주장들 및 그 실천과 관계하는 철학의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철학적 성찰의 대상인 한, 공공철학은 그러한 신념이나 주장들을 지탱하는 기본 가정들에 대해서 탐구하며, 또한 그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관련 영역들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공공의 실천적 문제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 그것은 하나의 지배적인 정치철학적 사고와 신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정치적 신념이나 주장들은 가장 포괄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공철학이라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이에 한 가지의 지배적인 정치이론이 공공철학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샌델은 현재의 미국 정치가 자치 및 공동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적 이념으로서 지배적인 공공철학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한 유형인 자유주의 공공철학으로 규정한다.<sup>9)</sup> 오늘날의 지배적인 정치적 공공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주의와 대립하는 정치철학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자신을 일방적인 공동체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을 거부하는 샌델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공공철학을 자유주의,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대표하지만 공동체주의와

9) 샌델은 정치이론으로서의 공공철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공철학은 우리의 실천 속에 함축되어 있는 정치이론, 즉 우리의 공공의 삶을 이루고 있는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가정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샌델은 좋은 삶의 선택과 추구와 관련하여 특정한 목적보다 공정한 절차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공공철학을 달리 ‘절차적 공화정’(the procedural republic)이라 부르기도 한다.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 4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성격을 갖는 공화주의로 구분한다.<sup>10)</sup> 이 중에서 주된 비판의 초점은 오늘(현대 미국)의 지배적 공공철학인 자유주의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샌델의 공화주의 공공철학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무엇인가? 샌델은 무슨 근거에서 오늘의 지배적 공공철학으로서 우리 삶의 기초로서 작용하고 있는 자유주의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그것으로서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가? 과연 샌델의 불만은 무엇인가? 샌델 자신이 그 대안적 해결책으로 내놓은 공화주의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언젠가 샌델은 오늘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 공공철학을 겨냥해서 “공동체주의자들의 답변”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 시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 속에 남아 있는 시민적 공화정의 가능성들(civic republican possibilities)을 되살리는 것이다.”<sup>11)</sup>라고 선언한 바 있다. 롤스의 철학적 공화정의 공공철학과 대비되는 샌델의 시민적 공화정의 공공철학은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샌델에 의하면, 공화주의 정치이론과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두 가지 점에서 가장 큰 대조를 이루는데, 하나는 옳음과 좋음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와 자치의 관계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자유를 자치와 관계 짓는 방식에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차이가 뚜렷이 대조를 이룬다.<sup>12)</sup> 먼저 자유주의적 자유는 자유를 “자치에 대한 제한”으로 정의하는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에서는 자유를 “자치의 결과”로 이해한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자치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거나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결합 방식이며, 후자는 자치를 통해서 자유가 보호되

---

10) 샌델 자신은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자신을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공동체주의와 구분하여, 자신의 정치철학의 근본 성격을 공화주의로 표현하고 싶어하지만, 필자는 샌델을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주의자 혹은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자(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자)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서는 맹주만,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제32집, 중앙철학연구소, 2012, 참조.

11) Michael J. Sandel, “Morality and the Liberal Ideal”, p. 17

12)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p. 25 이하.

거나 유지 또는 실현되도록 하는 결합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자유를 결과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미 자유를 자치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의 덕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샌델의 이런 정의는 지나치게 일면적이다. 먼저 자유와 자치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자유가 자치와 시민적 덕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자유주의적 자유는 오히려 자치와 자유의 양립 가능성을 추구하는 전통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관계를 고려하면 일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양자의 이상적 조합도 허용하듯이 자유주의적 자유 역시 자치를 규정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령, 샌델은 자유와 자치, 자유와 시민의 덕의 연결 방식에 의거해서 공화주의를 강한 형태와 온건한 형태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강한 형태의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과 정치 참여를 자유에 본질적인 것으로, 온건한 형태의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과 공공 봉사를 자유에 도구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를 가리킨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비록 정치공동체의 목적과 공동선에 대해서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자치와 시민적 덕들에 한정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화정을 정체로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자유와도 양립할 수 있다.

샌델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sup>13)</sup> 샌델에 따르면, 존 로크, 칸트, 존 스튜어트 밀, 롤스 등 관용과 개인권의 존중을 강조하는 사상 전통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지지하는 도덕적 내지는 종교적 견해들에 대해서 정부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법으로 정해서도 안 된다. 또한 정부는 자신이 추구할 가치와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 인간을 존중하는 권리 체계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설혹 목적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도 그에 앞서서 보다 공정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13) Michael J. Sandel, *Democracy s Discontent*, pp. 4-5.

주장한다. 이렇게 공정한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절차적 공화정이라 불리기도 하는 자유주의 공공철학은 개인의 권리의 우선성 및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좋은 삶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중립성, 무연고적 자아에 기초한 인간관 등을 핵심 원리로 삼는다.

반면에 이와 대조를 이루는 공화주의 공공철학의 핵심 주장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자치를 강조하는데, 특히 자유는 자치에 참여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자유를 자치로 이해하는 방식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모순되지 않지만,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치 참여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공익에 관해 숙고하고 정치 공동체의 운명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며,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를 중시한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자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특정한 인격적 성질이나 덕목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치 참여 혹은 정치 참여와 그에 수반하는 덕목을 지녀야 하는 시민들은 이미 공동체의 가치와 분리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체적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수 없으며, 중립을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 자체가 이미 시민들이 지지하는 가치요 덕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으로서의 시민과 공동체의 내재적 관계 때문에 공화주의적 자유는 시민들의 자치에 필요한 인격적 성질의 함양이 이루어지는 형성적 정치를 요구한다. 샌델은 이러한 자신의 공화주의 공공철학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유주의는 널리 인정되는 자유 우선의 기초를 갖고 있기에 그 자체로는 분명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를 보장하지는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유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 참여 의식이 요구되는데, 자유주의는 이를 현실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샌델의 자유주의 비판은 그 대상과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표적을 갖고 있는데,

14) Michael J. Sandel, *Democracy s Discontent*, pp. 5-7.

공리주의적 자유주의, 칸트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혹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 (롤스의) 평등주의적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자유주의 등이 그것이다.<sup>15)</sup> 이들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유주의가 하나의 명칭 아래 묶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공통적으로 좋은 삶에 대한 정부의 중립, 인간의 개별성의 강조,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 등을 중시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치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샌델의 문제설정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공통적인 특징이자 대표적인 문제적 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중립성 논제, 무연고적 자아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인간관 논제, 좋음에 대한 옳음 우선성 논제 등이다. 이들 논제 하나하나 마다 공리주의, 칸트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등에 따라서 다른 접근과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샌델이 이들에 맞서 하나의 대안 이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주의 공공철학은 정말로 오늘의 사회정치적 현실과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이론으로서 저들 다양한 자유주의 공공철학, 특히 칸트적 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인가?

### 3. 낙태 논쟁과 링컨-더글러스 논쟁

샌델은 자유주의의 한계 및 자신의 공화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주 도덕적 및 종교적 문제들과 관련 있는 정치적 논쟁들을 들곤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낙태 논쟁’과 ‘링컨-더글러스 논쟁’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논쟁은 샌델의 저서들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15) 롤스의 경우에 정치적 자유주의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면서 구별된다. 기본적으로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그것이 하나의 자유주의 이론으로서 철학적·형이상학적인 것의 의존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롤스식의 정치적 자유주의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혼용할 것이다. 각주 24) 참조.

있는 주제다.<sup>16)</sup> 이들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대립하는 전선을 확인해보고, 특히 샌델이 내세우는 공화주의 공공철학이 그가 진단하는 오늘의 민주주의의 불만과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도로써 자유주의 공공철학보다 더 나은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낙태 논쟁은 낙태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낙태의 도덕성 문제는 거의 40년 이상 강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주제였다.<sup>17)</sup> 아직도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문제와 쟁점을 안고 있지만, 그 결론이 어떤 것이었던 최소한 낙태 문제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중요한 도덕적 문제라는 것을 각인시킨 효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샌델의 공화주의 공공철학은 단적으로 “도덕적 및 종교적 신념들에 대해 중립적이기를 요구하는 형태의 자유주의”를 반대한다.<sup>18)</sup> 낙태의 경우, 샌델이 보기에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혹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태아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아예 괄호쳐버리는데, 이는 롤스의 그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도덕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치적 정의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주의자 샌델은 낙태 문제는 롤스식의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옹호하는 바와 같은 중립적인 정치적 문제가 결코 아니며, 따라서 여기에는 도덕적 중립 지대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낙태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 도덕적 내지는 종교적 교의들과 대결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샌델은 (정치적 혹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낙태 논쟁의 경우 이러한 대결은 곧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16)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p. 20-21;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98), pp. 197-202;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pp. 122-144.

17) 낙태 문제에 주목하게 만든 가장 초기의 논문들 중의 하나로는 J. J. Thomson, “A defense of Abor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1, 1971(Fall), pp. 47-66.

18) Michael J. Sandel,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p. 8.

데, 오히려 이는 역으로 낙태 논쟁에서는 옳음의 우선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즉,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 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입장 자체가 이미 발달 초기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과 아이를 죽이는 것 사이에 합당한 도덕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는 이미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 특정한 견해를 전제한다는 것이다.<sup>19)</sup>

다음으로 낙태 논쟁과 동일한 논리적 형식을 띠고 있는 링컨-더글러스 논쟁은 노예제의 도덕성에 대한 논쟁이다.<sup>20)</sup> 이 논쟁에서 정식화한 대립 구도를 보면, 더글러스는 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인민주권과 헌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예제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도덕적 논쟁을 팔호치고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 내전의 위험을 차단하거나 국가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링컨은 국가의 정책은 이런 노예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덕적 판단을 회피하지 않고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예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샌델은 링컨-더글러스 논쟁 사례를 통해서 링컨이 실제로 노예제를 그르다고 보았고, 더글러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도덕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를 도덕적 문제로 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 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이미 하나의 도덕적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서로 상이한 두 방식에 주목한다. 샌델에 의하면, 인민 주권에 관한 논쟁으로서 노예제에 대한 이런 이해 방식의 차이는 현대의 낙태권 논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이 두 논쟁 사례 모두 노예제나 낙태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

19) Michael J. Sandel, *Democracy s Discontent*, p. 21.

20) 샌델이 밝히고 있는 링컨-더글러스 논쟁 사례에 대해서는 Paul M. Angle, ed., *Created Equal? The Complete Lincoln-Douglas Debates of 185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로 간주한다. 즉, 도덕적 문제들을 괄호 치는 것, 다시 말해서 판단중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의 문제로 보고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샌델이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도덕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의 경우, 그것은 괄호 치기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샌델의 논리에 따르면, 의견이 갈리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은 대립하는 도덕적 문제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되는데, 정치적 자유주의가 바로 이런 태도를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샌델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상대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혹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와 칸트적 자유주의다.

#### 4. 정치적 자유주의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

샌델은 노예제 논쟁에서 더글러스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의심의 여지 없는 정치적 정의관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sup>21)</sup> 실제로 이러한 정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현대 자유주의자는 존 롤스다. 이미 여러 곳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롤스의 자유주의를 비판한 바 있지만, 전기의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 정치적 정의관이 아니라 도덕적 정의관을 옹호했다. 이 입장을 롤스는 스스로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포괄적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기의 롤스식 자유주의에 대한 샌델의 비판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도 방점을 달리하며 그대로 적용된다.<sup>22)</sup> 샌델은 더글러스처럼 중대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그 시비를 가리고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개인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정치적 정의관의 무관심과 무기력의 정치가 보여주는 심각성

21)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 22.

22) 이에 대해서는 맹주만,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pp. 324-330. 하지만 샌델의 비판이 롤스의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샌델이 내세우는 공화주의 공공철학은 일정 부분 전기의 롤스의 철학 및 칸트적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 자리에서 문체 삼지 않는다.

과 폐해를 비판한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좋은 삶의 선택을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소위 좋은 삶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유주의의 행태를 비난한다. 그러면 샌델이 자신의 이해 방식에 의거해서 비판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 혹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의 형태를 취한다고 보는 정치적 정의관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단 정치적 자유주의는 칸트적 자유주의와 구분되는데, 후자는 일종의 포괄적 자유주의의 형태를 취한다. 포괄적 자유주의는 이른바 도덕적 문제를 괄호 치기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특수한 도덕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세부적으로는 칸트적 자유주의와 전기 롤스의 자유주의가, 롤스가 유명하고 있듯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각각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 칸트적 구성주의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긴 하지만,<sup>23)</sup> 양자 모두 포괄적 자유주의로서 기본적으로는 칸트의 인간관처럼 하나의 철학적·형이상학적 이론에 의존적인 이론 구조를 취한다. 반면에 정치적 자유주의는 포괄적 자유주의인 칸트적 자유주의처럼 칸트적 인간관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좋은 삶에 대한 중립성을 강조하므로 철학적·형이상학적인 것의 의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샌델의 표현처럼, 최소주의적(minimalist) 자유주의라 부를 수 있다.<sup>24)</sup>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중립성 논증은 기본적으로 철학적·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 본성에 대한 논쟁적 주장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롤스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치적 정의관은 칸트의 도덕철학을 정치에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특징으로서 다원

23) J. Rawls,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77, No. 9, Sept, 1980; "Themes in Kant's Moral Philosophy", in Chadwick, R. F./Cazeau, C. ed., *Immanuel Kant : Critical Assessments*, Vol. III, London/New York: Routledge, 1992; 맹주만,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칸트연구』 제20집, 한국칸트학회, 2007, pp. 117-150.

24) 이는 롤스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의 기본 신조라 할 수 있다. Michael J. Sandel, *Democracy s Discontent*, pp. 17-18.

주의 현실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개인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히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개인적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도덕적 내지는 종교적 의무들도 공적 영역에서는 괄호를 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적 영역에서 우리 자신은 사적 자아로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삶을 기획할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자신을 이러한 사적 자아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공적 자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특별한 좋음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자아의 본질이나 도덕적 문제와 같은 철학적 논쟁들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 샌델은 이와 같이 “정치를 철학에서 분리하는 것이 갖는 설득력, 즉 정치와 관련이 있는 도덕적 및 종교적 문제들의 괄호 치기가 갖는 설득력”에 의존하는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를 “철학에 대한 민주주의의 우위”를 주장하는 정치적 정의관으로 규정한다.<sup>25)</sup> 그렇다면 샌델이 문제 삼는 정치적 자유주의 혹은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샌델의 지적과 비판은 정당한가?

우선 샌델의 비판은 적어도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롤스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일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샌델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철학적 정의관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관을 채택하는 이유는 샌델의 비판과 달리 철학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다. 이제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샌델의 비판처럼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논쟁적인 도덕적 내지는 종교적 견해들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이른바 정치적 자유주의의 괄호 치기는 결코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롤스가 옹호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이라는 철학적 관점 위에서 있는 도덕적 신념의 표현이다. 가령 낙태에 대한 도덕적 논쟁에서

25) Michael J. Sandel, *Democracy s Discontent*, p. 19.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낙태는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개인의 선택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론이 나지 않는 치열한 도덕적 실천적 논쟁으로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편들기는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뚜렷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데도 그것이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괄호 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샌델은 이에 대해서 도덕적 및 종교적 논쟁을 괄호 치는 것에도 이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러한 선택에 대한 확신, 이를테면 태아가 유관한 도덕적 의미에서 아기와 다르다는 확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sup>26)</sup> 이것은 본말을 전도시킨 왜곡된 해석이다. 샌델 역시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낙태에 대한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 또한 그의 공화주의가 갖는 목적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공평해 보이며, 이것이 참이라면, 샌델의 화살은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링컨-더글러스 논쟁의 경우도 과거의 노예제가 도덕적으로 그른 제도라는 것을 오늘날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가 된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었으며, 따라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정반대로 당시 더글러스의 주장이 관철되고, 동시에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노예제가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샌델의 주장은 그렇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쟁을 해서라도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이 옳다는 도덕적 타당성과 동시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전쟁뿐이라는 행위의 정당성, 이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충분히 옹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노예제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쟁마저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링컨의 선택이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었다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응답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노예제 괄호 치기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쟁

26)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 100.

팔호 치기는 허용될 공산이 크다. 전쟁의 경우에는 또 다른 도덕적 논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철학적 관점이다.

더 나아가 특히 샌델은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도덕적 논쟁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태도와 국가나 정부 혹은 이른바 시민적 자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는 태도를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인다. 또한 공동체와 자치의 가치를 중시하고 합리적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는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것이 비단 공화주의적 공공철학의 전유물인 듯 하는 태도는 일방적이기 쉽다. 앞서 지적했듯이 양자에게 이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 자유주의 혹은 공화주의와 결합하는 민주주의 정체에서는 언제나 요구되는 민주 시민의 요건이었다. 이렇듯 샌델이 느끼는 민주주의의 불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두의 불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수는 양자 모두에게 위협적인 세력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가 현대의 낙태 논쟁이든 과거의 노예제 논쟁이든 현재적 관점에서 특정한 도덕적 내지는 종교적 입장에서 어느 한 쪽의 견해가 옳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그 결정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선택에 내맡기는 것뿐인가? 어디까지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링컨-더글러스 논쟁에서 노예제가 도덕적으로 부당한 제도임이 판명난 것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만일 영원히 도덕적으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문제라면 모르지만, 언젠가는 결정 나기 마련인 문제라면, 그때까지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태도로 보이는데, 최소주의적 자유주의가 선택한 정치적 정의관 또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노예제의 비도덕성이 전쟁을 통해서 좀 더 빨리 결판났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노예제의 존속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는 샌델의 비판처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덕적 내지는 종교적 문제의 궤호 치기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현실 인식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다. 즉, 그 문제란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심하게 나누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이다.<sup>27)</sup>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표현이다. 전자의 표현은 후자의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때에만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현실 사회가 안정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 5. 샌델과 칸트적 자유주의

샌델이 정치적 자유주의에 가하는 비판의 정도와 비교하면 칸트적 자유주의 혹은 전기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포괄적 자유주의는 사정이 좀 나은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도덕적 관점에 제약되어 있는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와 달리 칸트적 자유주의는 특정한 도덕적 관점을 허용하는 입장이어서 도덕과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의 태도를 취한다거나 철학적 내지는 형이상학적 논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정치적 정의관이라거나 혹은 철학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등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칸트적 자유주의는 그레이가 자유주의의 철학적 교의로서 제시한 바 있는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 평등주의적(egalitarian), 보편

27)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p. xx.

주의적(universalist), 개량주의적(meliorist) 특징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특히 개인주의적 측면에서 칸트적 자유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철학이다. 또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포함한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은 복지, 의료,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경제적 가치 추구에서 전체 국민 내지는 국가의 복지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가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평등관을 갖고 있다. 현대의 칸트주의자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자유주의를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정식화한 바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정의의 제1원칙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선언했다.<sup>29)</sup> 또한 롤스는 이와 같은 평등한 자유가 보호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척도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로도 유린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해 있는 불가침성을 갖는다. (...)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정의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sup>30)</sup>

그러나 샌넬에 의하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칸트적 자유주의 역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적 정의관은 칸트의 도덕철학과 같은 특정한 도덕적 입장을 괄호 치는 정치적 중립의 태도가 문제였다면, 칸트적 자유주의는 정당화해야 할 특정한 도덕적·형이상학적 입장들을 정당화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샌넬이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문제는 ‘좋은데 대한 옳음의 우선성’과 ‘무연고적 인간관’이다. 앞서 노예제 논쟁의 경우에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좋

28) J. Gray, *Liberalism*, p. x.; R. J. Sullivan, *An Introduction to Kant's Ethics*, p. 9.

29)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p. 60.

30) J.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pp. 3-4.

은 삶이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지 여부를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결정해주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에 대한 결정에서 이 문제를 괄호 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명백히 그릇된 제도로 판명된 노예제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깊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가능했다. 그런데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은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칸트적 인간관 같은 포괄적인 도덕적 이상에 호소함으로써 이 같은 비판을 피해갈 수는 있었는데,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인간관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샌델이 칸트적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옳음의 우선성은 목적에 우선하는 자아상에 의존하는데, 이런 자아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듯이,<sup>31)</sup> 이에겐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를 갖는 옳음의 문제와 어떤 선행하는 특정한 좋음에도 의존적이지 않은 도덕적 자아관의 문제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좋음의 우선성을 옹호하는 샌델이 롤스를 비롯해 옳음의 우선성을 내세우는 칸트적 자유주의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칸트적 자유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옳음의 우선성 논제는 자아가 목적에 우선한다는 무연고적 자아관에 의존한다는 샌델의 비판은 정당한가? 이 문제를 앞서 낙태 논쟁과 링컨-더글러스 논쟁에 견주어보자.

샌델은 무연고적 자아 혹은 자유주의적 자아가 지닌 결함에 대해서 이미 여러 곳에서 소상하게 개진한 바 있다.<sup>32)</sup> 먼저 낙태 논쟁과 관련해서 샌델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가했던 비판,<sup>33)</sup> 즉 도덕적 및 종교적 논쟁을 괄호 치는 것에도 이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러한 선택에 대한 확신, 이를테면 태아와 아기와 다르다는 확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

31)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 13.;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pp. 7-11.

32)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p. 13-17;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98), p. 184-218;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pp. 1-24.

33)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 100.

문이라고 했던 주장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칸트적 자유주의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칸트적 자유주의는 포괄적 자유주의로서 하나의 도덕적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하는 정치적 목적을 내세워 비판할 수 없다. 때문에 샌델은 칸트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덕적 인간관이 의존하고 있는 자아관, 즉 무연고적 자아를 옹호하는 자유주의를 겨냥한 비판에 주력하게 된다. 이는 동시에 옳음의 우선성에 대한 비판과 결부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자아를 무연고적 자아로 간주하는 샌델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가 없다’ ‘~가 아니다’와 같은 부정적 정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판을 받는 상대가 하는 주장의 진의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 보인다. 가령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지거나 찬양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의무나 정치적 의무 혹은 도덕적 유대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무연고적 자아는 우리의 도덕적 경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sup>34)</sup> 이 같은 접근은 칸트나 롤스가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자아가 샌델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연고적 자아로부터 도출되는 자아의 비역사성, 추상성, 중립성 등 현실과 유리된 자아관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sup>35)</sup> 가령 “각 개인은 그 나름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구상하고 그 행복을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에서 이루어지는 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추구할 자유와 능력 및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칸트적 의미에서 “중립의 원칙”(neutrality principle)이라 말할 수 있는데,<sup>36)</sup> 이 원칙은 국가의 기능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이한 집단들의 관심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유를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데서 찾는다. 그런데 이 때 자유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무연고적 주체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특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의

34) Michael J. Sandel, *Democracy s Discontent*, p. 13.

35) 맹주만,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p. 325.

36) R. J. Sullivan, *An Introduction to Kant s Ethics*, p. 8.

구성원들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자연적 삶이 있으며,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특수한 좋은 삶들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삶의 주체로서 경험적 자아들 혹은 자연적 자아들은 이미 연고적 자아, 역사적 자아, 공동체적 자아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이미 자연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전적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이상이나 자유지상주의의 자유주의적 이상이든 현대 자유주의가 추구해 온 것은 모두 여전히 “평등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제 현실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역사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sup>37)</sup>의 해결에 대한 요구였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나 공동체를 상대로 한 것이며, 거기에는 이미 자연적 의무와 다양한 사회정치적 의무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sup>38)</sup> 한편으로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존재, 좋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또 하나의 공동체, 보다 나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원천적 주체요 담지자가 칸트적 자유주의의 자아이다. 또한 샌델이 비판하는 자유주의의 고전적 형태에 속하면서도 오늘날의 칸트적 자유주의보다는 샌델의 공화주의 내지는 공동체주의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 칸트의 자유주의(Kant’s liberalism)의 자아도 있다. 가령, 칸트는 오늘의 칸트적 자유주의처럼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자유의 부당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존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롤스가 이해하는 포괄적 자유주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국가는 정의를 증진시키며,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의무를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sup>39)</sup> 더욱이 도덕적 및 종교

37) P. Pettit, “Towards a Social Democratic Theory of the State”, p. 550.

38) P. Pettit, “Towards a Social Democratic Theory of the State”, pp. 537-551.

39) I. Kant, *Über den Gemeinspruch : Das mag in der Theorie richtig sein, taugt aber nicht für de Praxis*, pp. 154-155. 칸트는 국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국민을 그들의 의지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행복하게 해주

적 문제에 대해서 괄호 치기를 하거나 단순히 맹목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지 않은가! 시민법의 제정과 국민의 의무를, 나아가 시민의 정치적 의무가 도덕적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칸트의 정치철학은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내지는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읽어낼 여지도 상당하지만, 현재의 논의 연관 속에 보자면 자유주의적 원리 아래서 공화주의적 가치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동시에 샌델의 공화주의를 좀 더 큰 틀 아래서 검토할 필요성을 갖게 만든다.<sup>40)</sup>

뿐만 아니라 롤스가 말하는 포괄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갖는 칸트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낙태 문제와 노예제 문제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적어도 낙태 문제는 인간 혹은 생명의 정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중요한 의견 차이 있지만, 노예제 문제는, 이 점은 샌델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칸트적 자유주의자들 역시 노예제의 도덕적 부당성을 옹호하며 그에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칸트적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칸트의 자유주의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도덕적 해결을 선호한다. 칸트는 낙태를 반대할 것이며, 이는 그의 도덕철학으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샌델은 자유주의 공공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노예제와 낙태 문제를 다루면서 실제로는 노예제 논쟁을 통해서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낙태 문제를 통해서 자유 선택권을 옹호하는 칸트적 자유주의의 자아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설사 칸트적 자유주의가 낙태 옹호의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무연고적 자아관의 필연적 귀결인 것은 아니다. 낙태를 거부하는 도덕적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의 원인과 이유에 보다 더 많이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샌델의 칸트적 자유주의

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체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같은 책, p. 155.

40) 공화주의자로서의 칸트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다른 지면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비판은 공평하지 못하다.<sup>41)</sup>

## 6. 나오는 글

샌델의 공화주의 공공철학은 롤스식의 자유주의 공공철학을 도덕과 종교를 철두철미하게 괄호 치기 하는 정치이론으로 규정하며, 그러한 자유주의적 정치의 폐해를 경고한다. 정치가 결코 도덕적 및 종교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배제하려는 어떤 태도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샌델이 예로 들고 있는 낙태 논쟁과 링컨-더글러스 논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령, 노예제의 예에서 보듯이 링컨과 더글러스는 정치인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결정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들 각자 혹은 각 진영은 노예제 문제와 같은 모든 유사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해서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지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행위에서 반드시 그러한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자치와 이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시민적 덕목들 혹은 민주적 시민의 자치 등은 우리의 목숨이나 안위가 걸린 정책적 결정과 실행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에겐 언제나 도덕적 옳음과 정치적 결정의 과정이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일 가능성 혹은 위험이 내재해 있다. 샌델의 공화주의 공공철학이 지닌 치명적인 결함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역사상 인민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범죄와 해악 내

41) 이와 함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샌델의 해석과 평가는 공평하지 못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도 이 점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는데, 샌델의 비판은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지는 개인의 권리의 유린 등은 모두가 자치의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거나 혹은 다수라는 이름을 빙자한 독재나 강제와 억압의 산물이었다. 물론 반대로 숭고하고 위대한 상찬할만한 행위 역시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그와 긴장 관계를 형성해왔던 것도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하고, 또한 이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선택이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는 샌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엄연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존재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공동체다.

샌델 역시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공화주의의 역사가 보여주는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sup>4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다수주의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샌델이 공화주의 공공철학의 길을 선택한 데에는 오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자유를 자치의 결과로서 인식하고, 도덕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대결하며, 따라서 시민적 덕성과 도덕적 판단의 역할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적 자유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 수호와 향유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의 믿음의 발로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칸트적 자유주의의 기획을 폐기할 때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다. 오히려 문제는 그러한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체가 자치의 상실이나 공동체의 쇠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이 샌델이 우려하는 그런 위험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가와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의 자유주의와 다양한 도덕적 내지는 종교적 문제들과 씨름해야 하는 작은 틀에서의 자유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샌델의 공화주의 공공철학과 그리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42)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p. 27.

## 참고문헌

- 맹주만,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제32집, 중앙철학연구소, 2012.
- \_\_\_\_\_,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칸트연구』 제20집, 한국칸트학회, 2007.
- 세실 라보르드·존 메이너 (편),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광준혁·조계원·홍승헌 옮김, 까치, 2009.
- Dworkin, R.,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Gray, J., *Liber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 Kant, I., *Immanuel Kant Werkausgabe in zwölf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8.
- Kymlica, W.,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18.
- MacIntyre, A.,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 Pettit, P., “Towards a Social Democratic Theory of the State”, *Political Studies* (1987), XXXV.
- Rawls, J.,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1993).
- \_\_\_\_\_, *A Theory of Justice* (197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_\_\_\_\_, *A Theory of Justice* (1999), Revise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77, No. 9, Sept, 1980.
- \_\_\_\_\_, “Themes in Kant’s Moral Philosophy”, in Chadwick, R. F./Cazeauk, C. ed., *Immanuel Kant : Critical Assessments*, Vol. III, London

- \_\_\_\_\_, /New York: Routledge, 1992.
- \_\_\_\_\_,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옮김, 동명사, 1998.
- Sandel, Michael J., *What Money Can't Buy : the moral limits of market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2.
- \_\_\_\_\_,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98), 2nd. revise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Morality and the Liberal Ideal", *The New Republic* (1984), May 7.
- \_\_\_\_\_,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 \_\_\_\_\_, 『정의의 한계』, 이양수 옮김, 멜론, 2012.
- \_\_\_\_\_,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옥 외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8.
- Sullivan, R. J., *An introduction to Kant's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Thomson, J. J. "A defense of Abor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1, 1971(Fall).
- Walzer, M.,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83.

## **Sandel and the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Maeng, Joo-Man (Chung-Ang Univ.)

Sandel maintains that democracy's discontent, as he says, is caused by the loss of self-government and the erosion of community which have suffered from the limits of the liberalistic public philosophy by which we live. The central idea of the liberal political theory here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 espouse. This Kantian liberalism consist of three main thesis, the priority of individual rights, the ideal of neutrality, and the conception of persons as freely choosing, unencumbered selves.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problems of Sandel's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which criticizes the limits of Kantian liberalism, including Rawls'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minimalist liberalism. Sandel's republican political theory contrasts with the liberalism of the procedural republic in at least two respects. The first concerns the relation of the right to the good; the second, the relation of liberty to self-government. Republicanism affirms a politics of the common good, and the republican sees liberty as internally connected to self-government and the civic virtues that sustain it. Sandel deals with the abortion debate and the Lincoln-Douglas debates in order to make a diagnosis of pending political issues which expose the limits of liberalism, and show that his republican alternatives are right.

In this paper I argue two things. One thing, in spite of the limits of Rawls' liberalist public philosophy, I will argue that Sandel's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cannot offer an alternative resolution because it has serious problems like leaving individual rights vulnerable to the tyranny

of the majority, dominant civic virtue or the powerful person having it, etc. The other thing, in spite of its more than a few inner problems, I will argue that Kantian liberalism still holds through something like the comprehensive liberalism confronting directly about moral problems.

**Key words:** Sandel, Rawls, Kant,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liberal public philosophy, Kantian liberalism, minimalist liberalism, political liberalism, republicanism, liberalism, civic republic, procedural republic, the abortion debate, the Lincoln-Douglas debates

맹주만 e-mail: maengjm@cau.ac.kr

투 고 일	2013년 10월 14일
심 사 일	2013년 11월 04일
게재확정	2013년 11월 13일